

지역 소식통



고창문화전당서 군민 포럼  
변창흠 전 국토부장관 초청

고창군이 지난 3일 오후 고창 문화의전당에서 변창흠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초청해 '지역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고창형 주거플랫폼 구상'이라는 주제로 군민 포럼을 열었다.

변창흠 전 장관은 살기 좋은 정주여건 개선이 필요하며 지역발전정책의 한계와 사업실행 모델의 필요성을 제시하며 주거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주택공급의 기회는 수도권에, 개발이익은 부동산 보유층에게 편중되는 '공간적 서열화'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변창흠 전 장관은 "군민의 기대에 맞는 주거·산업·서비스 기능을 체계적으로 연결하는 생활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 내장산 문화광장서  
8월까지 범퍼 보트 운영

정읍시가 내장산 문화광장 일원에 조성된 수상레저 체험존의 범퍼보트를 오는 8월 31일까지 운영한다.

물 위의 범퍼카로 불리는 범퍼 보트는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수상 레저시설이며, 14세 미만은 보호자와 동반하여 이용할 수 있다.

이용 시간은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두 타임으로 진행되며, 총 20대의 범퍼 보트를 운영한다.

이용 요금은 2인용 1대당 15분에 7,000원, 30분에 1만원이며, 시민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는 2,000원의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정읍시는 수상 안전요원을 배치해 이용객들의 안전을 지킬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 '동학농민혁명, 모두의 하늘을 열다'

## 동학농민혁명기념제 11일 정읍서 개막

올해로 57회째를 맞는 동학농민혁명 기념제(이하 기념제)가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인 황토현전승일에 맞춰 오는 11일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이하 기념공원)에서 열린다.

올해 기념제 주제는 '동학농민혁명, 모두의 하늘을 열다'이다. 동학농민혁명이 꿈꿨던 만민 평등 정신과 자주독립 의지를 계승하고, 동학농민군이 최초로 승리한 역사의 현장에서 동학농민혁명의 정체성을 새롭게 수립하고 혁명 도시의 위상을 제고하겠다는 의

미를 담았다.

특히 올해는 동학농민혁명 130주년을 기념해 전국의 동학농민혁명 단체가 참석한다.

이들 단체는 기념공원 사발통문 광장에 모여 만장 깃발을 들고 선언문을 낭독하면서 1894년 당시 농민군 승리의 함성을 외치는 '한마음 한뜻으로'라는 퍼포먼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뒤이어 시민, 나라꽃물매, 청소년, 지역 문화예술인 511명이 행진과 플래시

몹 예술 행위를 진행하면서 기념제의 흥을 키우는 '그날의 함성' 퍼포먼스도 진행된다.

이 퍼포먼스에는 이학수 시장과 함께 '제3회 세계혁명도시 연대회'에 참석한 아일랜드 코크의 키아란 존 맥카시 시장과 아르헨티나 알타그라시아의 마르코스 토레스 리마 시장 등이 참석해 기념제의 성대한 개최를 응원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어린이 합창대회, 청소년 토론대회, 댄스 경연대회를 개최하면서 전 연령대가 동학농민혁명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청소년의 시각으로 재조명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기념제에서는 옛 말목장터를 재현해 행사장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떡거리, 불거리, 살거리 등을 제공하는 부스도 운영된다. 또한, 정읍의 다도문화를 전파하기 위해 자생자 페스티벌도 운영할 예정이다.

이학수 시장은 "동학농민군의 숭고한 애국애족 정신이 이번 기념제를 통해 전국민들에게 온전히 전달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시는 동학농민혁명의 위대한 정신을 더욱 계승하고 발전시켜 세계사적 혁명으로 자기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번 기념제는 제130주년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식과 같은 날 같은 장소에 열리면서 농민군의 값진 승리를 더욱 빛낸다는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올해로 57회째를 맞는 동학농민혁명기념제가 동학농민혁명기념일인 황토현전승일에 맞춰 오는 11일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에서 열린다. 사진은 지난해 열린 기념제.

## 부안, 제52회 어버이날 기념 효행자 표창

### 총 15명에게 수여

부안군은 최근 군청 2층 대강당에서 '제52회 어버이날'을 앞두고 효행자 13명, 노인복지기여자 2명 등 총 15명에게 군수 표창을 수여했다.

효행 부분 군수 표창은 아흔이 넘는 친정아버지를 극진히 봉양한 부안을 최현옥님, 주산면 잠금순님 외 11명이 효행상을 받았다.

노인복지기여자 표창부분에서는 이경선씨와 송지수씨가 어르신들에게

성실하고 편안한 서비스를 제공한 공이 인정되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효행자 수상자들은 입을 모아 "효도는 자식으로서 당연한 도리인데 이렇게 상을 받게 되니 감개무량하다"며 "이웃의 귀감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 고창산림조합 원목효도의자 100개 고창군에 기증

고창산림조합(조합장 김영건)은 지난 3일 가정의 달을 맞아 군에서 조립사업을 하기 위해 별채를 하고 임야에서 발생한 소나무로 만든 원목효도의자 100여개를 고창군에 기증하였다.

고창산림조합은 지난 2015년부터 매년 100개씩 8년 연속으로 기증해 왔다. 현재 총1000여개의 의자를 마을 안길, 시장길, 버스 정류장 주변에 설치해 보행이 불편한 지역 어르신들과 주민들의 편의 증진 기여에 효평

을 얻고 있다.

김영건 고창산림조합장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께서 잠시 쉬어갈 수 있는 효도의자를 제공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군민과 함께하는 산림사업 전문기관이 되겠다"고 말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나이드신 어른들이 많은 지역에 좋은 뜻을 담아 효도의자를 제작해 기증해 준 고창군산림조합에 깊은 감사의 뜻을 보낸다"



며 "군에서 하는 조립사업으로 인한 부산물을 활용해 만든 의자에 고창을 찾는 분들도 앉아 여행 중 쉬어갈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지난 3일 개막한 제11회 부안마실축제가 6일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사진은 마실축제 기간 동안 진행된 마마스 앤 파파스 뮤직페스티벌.

## 축제 열기, 장대비도 뚫었다

### 제11회 부안마실축제 성료

제11회 부안마실축제가 지난 3일 개막해 6일 폐막식을 끝으로 성료된 가운데 폭우 등이 반복되는 속에서도 주민과 관광객에게 큰 인기를 얻었다.

올 축제는 5월의 선물, 가족여행 부안!이라는 콘셉트로 5개 분야 27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축제 공간은 별마실과 여행마실, 지하마실, 이웃마실, 예술마실, 여행마실 등으로 구성했으며 축제 프로그램은 공연 프로그램과 주제 프로그램, 특별 프로그램, 놀이 프로그램, 체험 프로그램, 사전 신청자 대상 프로그램 등으로 개최해 각 프로그램마다 구름 인파로 가득했다.

실제 지난 3일 열린 '개막식'에는 3000여명의 관광객이 모였으며 축제 주제 프로그램인 '최고의 마실을 찾아라'에도 3만여명이 참여해 번쩍스러운 날씨도 무색하게 했다.

매일 여행마실 주 무대 인근에서 진행된 '이머시브 다이닝', '부안 특산물 팝업 스토어' 등 부안민의 특별함을 느낄 수 있는 신규 프로그램에도 4일 동안 2만여명의 군민과 관광객들이 찾

아 큰 인기를 얻었다.

또 몸도 마음도 힐링되는 자연의 테라피 '곰소 소금길 걸기'와 특별한 공간에서 즐기는 농촌의 아메니티 '달빛 영화극장', 부안 대표 특산물을 직접 구입해 숯불 그릴에 조리해 먹는 '로컬푸드 팝아트' 등 부안민의 특별함을 뽐내며 많은 특별 프로그램들도 4만여 명의 군민과 관광객들이 찾아 북새통을 이뤘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열린 '부안마실 효도밥상'은 특별한 사연을 가진 30가족을 선정해 부안 특산물로 만든 맛있는 식사와 함께 부안정자 선물을 전달해 훈훈한 감동을 선사했다.

특히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열린 축제에는 6일 오후 2시 기준 총 15만여 명이 찾았으며 이 기간 동안 부안에는 25°C를 웃도는 폭염과 함께 최고 72.5 mm, 평균 58mm 강우량을 기록한 점을 감안하면 적은 수치가 아니다.

관악현 부안군수는 "내년에는 더욱 재미있고 알찬 프로그램으로 부안마실축제를 준비하겠다"며 "따뜻한 봄꽃의 향기가 가득한 5월의 봄날에는 항상 부안마실축제를 잊지 마시고 부안을 찾아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 정읍시, 국립농업과학원 현장실증연구 대상지 선정

정읍시가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에서 주관하는 '농업기반 기술분야 현장실증연구' 대상지역으로 선정됐다.

이번 실증시험은 '질소비료 사용량 절감 및 수량 증대를 위한 심층시비 기술 현장실증'으로 영원면 장재리에 위치한 농가 포장(圃場)에서 지난 1일 사료용 옥수수 파종으로 현장 실증시험을 시작했다.

국립농업과학원에서는 이번 현장실

증을 통해 처리구는 심층시비기로 30cm 깊이로 비료를 투입, 대비구(관행처리)는 기존에 방식대로 측조시비기로 표토에 살포하고 각각 사료용옥수수(광평옥)를 파종했다.

이번 실증을 통해 질소비료를 25% 절감할 계획이며 암모니아 가스 배출량과 생산성을 조사해 다양한 작물에서 질소비료 저감 효과를 검증할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 착한신고

112

##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